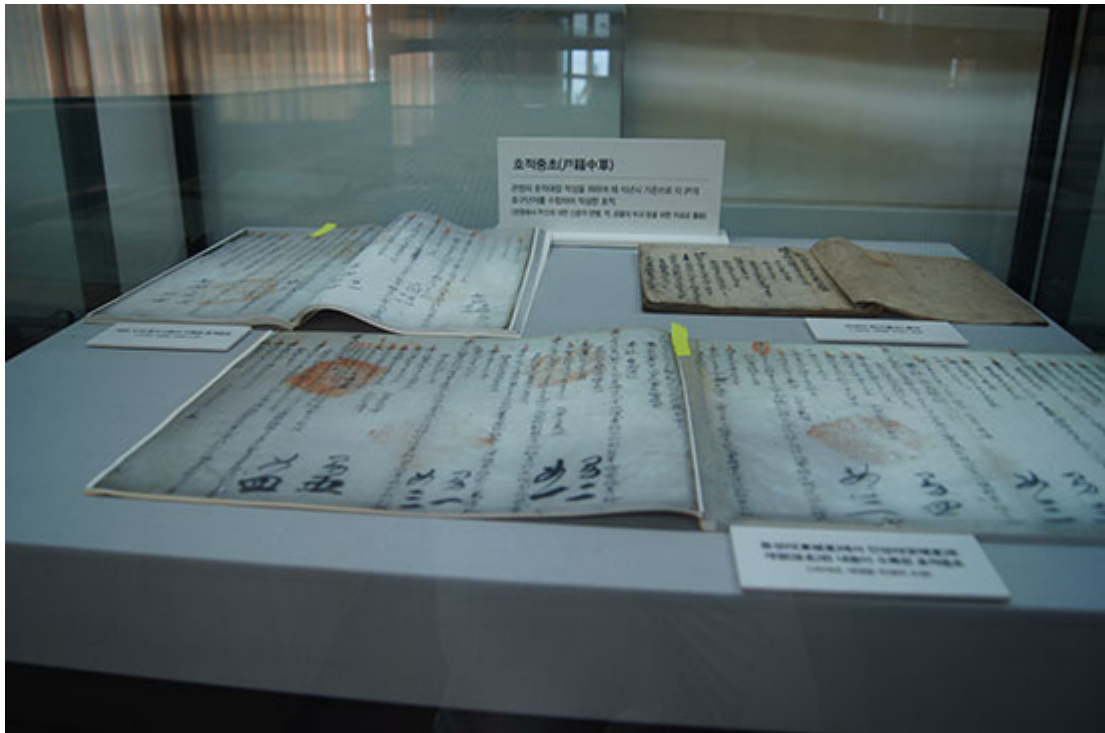


도내 첫 기록사랑마을 지정된 '안성리'

1780~1922년까지 기록된 호적중초 기록의 '백미'

데스크승인 2014.06.23 좌동철 기자 | roots@jejunews.com



▲ 안성리 마을회관 2층에 설치된 기록사랑마을 전시관에 보관 중인 호적중초. 1843년 호적중초에는 추사 김정희에게 집을 제공했던 송계순과 강도순의 호구도 기재돼 있다. 유배인들의 전파한 수준 높은 학문의 영향으로 마을 주민들은 일찍부터 고문서를 향사(마을회관)의 '서통궐'(목재함)에 잘 보관했고, 함부로 열람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관리했다.

4·3당시 향사에 있던 고문서가 불태워질 것을 우려한 마을 유지들은 3개의 서통궐을 집으로 가져간 후 마루 널을 뜯어 몰래 숨겨두었다.

이처럼 소중하게 간직한 문서들은 오늘날 기록유산으로 남게 됐고, 안성리는 '기록사랑마을'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은 교지와 칙명, 관고첩 등 15점, 절목류 4점, 정간류 4점, 성책류 3점, 선생
록 8점, 병서 5점, 호적류 53점, 경로회규약 1점, 토지문서 10점, 시집 필사본 8점, 축문 3점 등
모두 114점이다.

기록의 백미는 오늘날 주민등록부나 다름없는 36권의 '호적중초(戶籍中草)'다. 이 기록물은 1780년
부터 1922년까지 142년 동안 단절 없이 이어졌다.

주민들의 신분 구별과 역(役) 및 공물(貢物)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됐다.

호주와 처는 나이·본관·4대조를 기재했고, 자녀는 직업과 나이를, 며느리는 성씨·나이·본관을 적어
놓았다. 노비는 본인은 물론 부모의 이름과 나이를 기재했고, 도망 사례도 적시했다.

기록사랑마을의 산파 역할을 한 임영일씨(78)는 "호적중초에는 사노·교노·관노 등 유달리 노비들이
많았고, 노비들 중에도 종이를 만들던 지장, 활을 제작하는 공장 등 특수 직업인이 있었다"고 말
했다.

그는 "1783년의 호적중초를 보면 안성리 마을에는 8명의 유배인이 배정됐고, 이 중 한 명은 33세
에 입도해서 76세까지 43년 동안 유배생활을 보내기도 했다"며 당시 시대상을 소개했다.

© 제주신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